

4월 30일 기준, K-패스 회원 100만명 돌파!

- 신규 K-패스 카드 발급 신청 25만명 돌파,
기존 알뜰교통카드 회원 중 82만명 K-패스 회원으로 전환 완료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강희업)는 4.30일 기준 K-패스 이용자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K-패스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.
- K-패스 카드 신청(4.24일) 개시 일주일 만에 신규로 K-패스 카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25만명을 돌파하였다.
- K-패스 카드 신청은 10개 카드사*의 모바일 앱(App), 누리집 등에서 가능하며,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별 상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.
 - * 신한, 하나, 우리, 현대, 삼성, BC, KB국민, NH농협, 이동의즐거움, DGB유플이
 - ※ 일부 카드사의 경우 초기 신규 발급 신청이 집중되어 카드 재고 소진 및 발급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나, 카드사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카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
- 또한, 기존 알뜰교통카드 회원 중 약 82만명이 K-패스로 회원전환을 완료해 알뜰교통카드 회원들도 단절 없이 K-패스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.
- * 기존에 발급받은 알뜰교통카드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(alcards.kr)에서 K-패스 회원으로 전환 가능
-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-패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여 5월 1일 K-패스 개시 이후에도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	책임자	과 장	백승록 (044-201-5080)
		담당자	사무관	박태현 (044-201-5082)
			사무관	박주연 (044-201-5087)